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시몬 듀이, 잔잔한 물가의 일부, 유타
아메리칸 포크, 앨터스 미술관 제공
뒤: 월터 레인,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친구들란 표지

그림: 시몬 듀이, 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유타 아메리칸 포크, 앨터스 미술관 제공

6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스티븐 케이 이바
- 16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찾음 요한 에이 원드라 장로
- 26 말일성도의 소리
어머니의 사랑에 싸여 보니 대니엘슨
성탄절의 생활 줄리아 마리아 코르테스 펠루스
에과도르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칼 그로센
아버지가 주신 선물 루스 엠 앤더슨
그녀는 빛을 가져왔다 무리엘 로빈슨
성탄절의 작은 기적 이름을 밝히지 않음
- 33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축복을 기뻐함
- 34 의로운 여성 엠 리셀 밸라드 장로
- 44 리아호나 고전: 제가 드린 간증은 진실합니다.
루시 맥 스미스 자매
- 48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10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들: 말일성도 화가들이 그분에 대해 증거하다
- 20 노래: 저 거룩한 곳에서 샬리 드푸드
- 22 질의 응답: 왜 교회에서는 16세가 되기 전에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나요?
- 25 좋은 아이디어: 값진 선물
- 32 우리의 작은 선물 조슈아 디무
- 46 십일조를 낼 때 오는 축복 제니퍼 엠 세베리노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사랑이란 구세주의 은사: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 4 "나는 세상의 빛이라" 킴벌리 웹과 크리스틴 래플리
- 6 예언자를 위한 노래 로리 모텐슨
- 9 신약 성서 이야기: 재림
- 12 함께 나누는 시간: 평화의 왕자(평강의 왕) 비키 에프 마쭈모리
- 14 친구가 친구에게: 아데마 다미아니 장로
- 16 "나는 세상의 빛이요" 컷아웃
킴벌리 웹과 크리스틴 래플리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편집장: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장: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앨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제이 캔트 솔리, 더블류 톨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로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엘 그린우드

부편집인: 로지 테리

편집인 보조: 리자 앤 잭슨

편집 보조: 수진 브렛

출판 보조: 콜리트 네베커 오온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크트 벤 캠펜

선일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토마스 에스 차일드, 랜들 제이 픽스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카비, 켈리 프랫, 로널드 에스 스피크스, 캐리 에이 토드, 콜라우니아 이 와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인쇄 및 배부: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구독):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41호, 제 39권, 제 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편집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말모어, 카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미디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ecember 2002 No.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선교사업에 관한 기사들을 즐겁게 읽다

2001년 9월 26일에 캘리포니아 밴주라 선교부에서 봉사하러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10월호가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집에 왔는데, 모두 선교 사업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10월호에는 어떻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호세 에이 로만 세라노 장로,
캘리포니아 밴주라 선교부

친구들에게 리아호나를 빌려주다

저는 매달 리아호나(영어)를 즐겨 읽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 그것을 갖고 다닙니다. 친구들은 내용이 어떤지 보려고 그것을 빌려 보며,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좋아합니다. -리아호나를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빌려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회원들에게 이미 다 읽은 리아호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플로라 티 가데인건,
필리핀 다구판 스테이크,
칼라시아오 제2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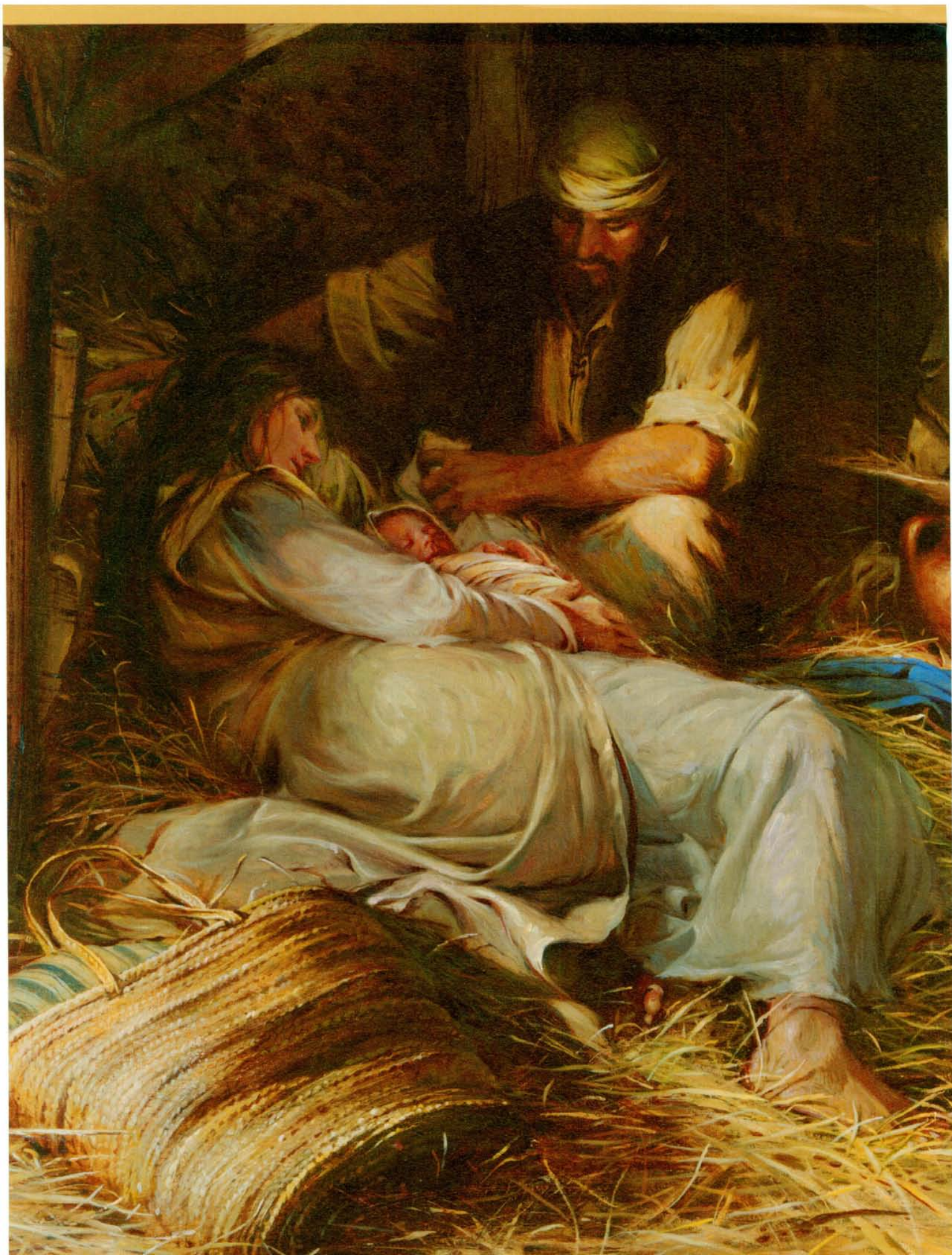
말일성도들의 모범으로 자신감을 얻다

와드의 장로 정원희 회장으로서는 제가 정원희를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예언자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은 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며,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말일성도들의 모범에 대해 읽는 것은 제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자후너 프랜시스코 오로즈코 캠프스,
마나과 나과라과 스테이크,
알타그라시아 와드

편집자주: 리아호나에 대한 관심사와 제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기사, 제언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2 or e-mail to cur-liahona-imag@ldschurch.org.

우리는 피드백과 기사 제출을 환영하지만, 리아호나와는 관련이 없는 편지와 이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다른 나라에 사는 회원들과 연락하는 것을 도와 달라거나, 공과를 위한 특별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면 주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보내실 때에는 리아호나와 관련된 항목에만 국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도움이 될 자원에 대해 더 잘 안내해 주고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서 더 잘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구속주께서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0:1 참조)

그분이 아직 유아였을 때, 부모가 그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운명을 지닌 그 어린 아기에 대하여 시므온과 안나가 말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12살 때 다시 부모가 그를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가 선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선생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요셉스미스역 누가복음 2:46 참조)

위대하신 여호와

나중에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서셨을 때 사탄은 성역을 막 시작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더 이후에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으로부터 쫓아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13)

예수님은 진실로 구약의 위대하신 여호와이셨는데, 높은 곳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버지 궁전을 떠나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로 지상에 오시고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그보다 수백 년 이전에 이사야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우리가 엄숙하게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자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요한 계시록 1:5~6)

세상의 구세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셨으며, 현재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살아온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앞은뺨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속죄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속죄의 중요성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상에서 한때 감람산에서 있었던 감람나무의 작은 숲만큼 거룩한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멸의 생에서의 그 마지막 밤에 사도들을 뒤에 남겨 두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겻세마네에서 고통을 받으신 후 체포되고, 재판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뒤이어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고, 승리의 부활이 뒤따랐습니다.

속죄의 희생을 시작하는 그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 드신 곳이 바로 겻세마네 동산 안의 그 곳이었습니니다.

천천히 나아가사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리시면서 그분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외치셨습니다.(마가복음 14:36)

누가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했는데(누가복음 22:44), 그것은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에서 확인된 실제적인 육체 현상이었습니다. 겻세마네에서의 고난과, 그리고 겻세마네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에는 “죽음은 아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이고 또한 영적인 “시험, 고통, 주림, 갈증, 기력이 진하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베냐민 왕이 말했습니다.(모사이야서 3:7)

사려 깊은 그리스도 추종자들에게는 단 한 분의 자발적이고 자비로운 희생이 공의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인간의 과오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 사랑으로 가득한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저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분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과 존경을 표하며 사도로서의 간증을 드립니다.

겻세마네에서 고통을 받으신 후 체포되고, 재판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뒤이어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고, 승리의 부활이 뒤따랐습니다. 2천년 전에 베들레헬에서 초라하게 태어나 팔레스타인의 먼지나는 길을 걸으셨던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 왕 중의 왕,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 생애의 광휘, 그분의 죽음의 위대함,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분의 은사의 보편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돌아

가실 때 말하던 그 백부장과 더불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가복음15:39)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주님

그것이 구세계의 성약인 거룩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도 있는데, 이는 신세계의 성약에 담긴 것으로,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서 그분의 부활하신 아들을 소개하시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니파이삼서11:7)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현대 예언자들의 선언이 더해집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터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

인류 역사상 어떤 사건도 부활의 실제성보다 더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대륙의 그의 추종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명의 남녀가, 전 세계를 위한 은혜의 행위로서 속죄해 주신,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그들 가슴 속의 증거 때문에 고통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구속에 대한 간증을 생생하게 유지해 온 용감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무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살려 내시고, 그분의 살아 계신 실재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말일에 다시 오셨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님이 오셨도다; 땅이 그 왕을 영접하게 할 지어다. 모든 가슴이 그분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고 성도들과 천사들이 노래하게 할 지어다.

(참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양 10월 10월 10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함께 일어나
다 찬송부르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30장)

우리의 구속주로서,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로서, 신약의 메시야로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이 전하는 간증의 전체 핵심은 살아 계신 주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과 신앙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에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앙과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더 많은 친절과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그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곤경과 비탄과 궁핍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경외심과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필멸의 상태에 놓인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그분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속주, 인류의 구세주, 기록하신 분, 생명과 평강의 왕자이신 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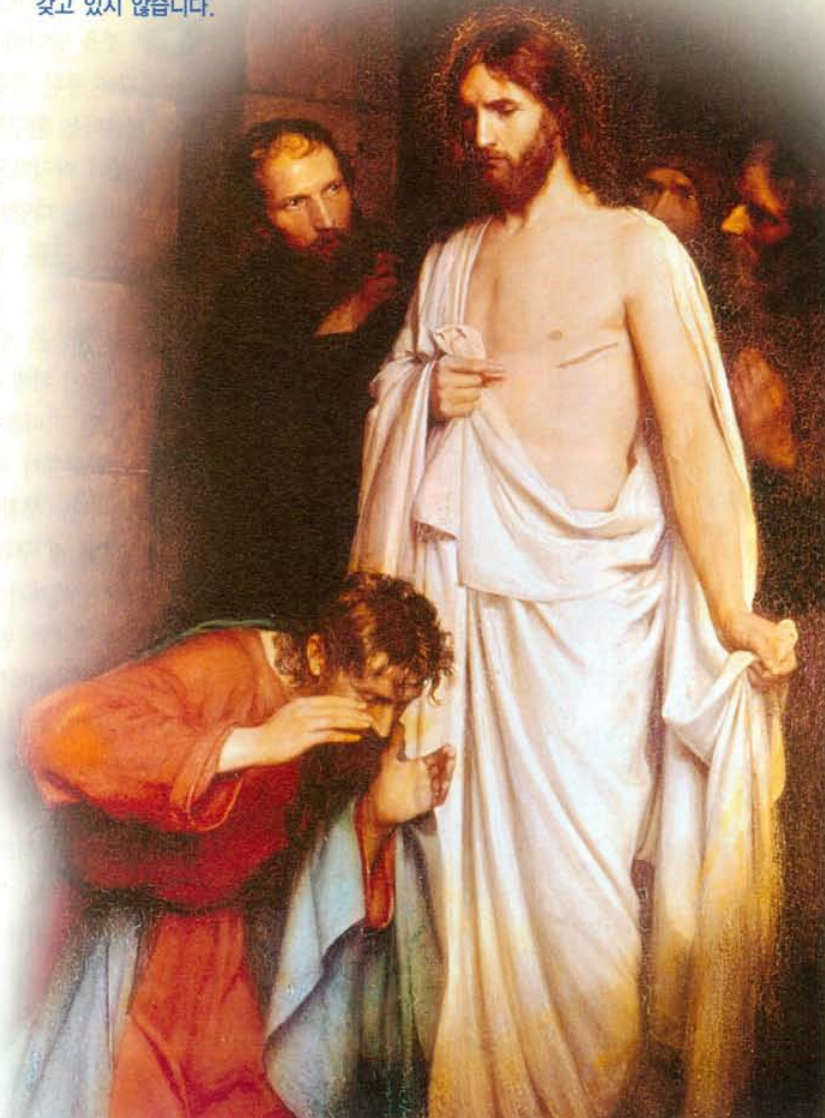
1. 구세주의 생애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의 그림을 보여 준다. 가족 구성원에게 그러한 사건에 관해서와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그들의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에서 마지막 세 문단을 읽어 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증을 전한다.

2. 가족 구성원들에게 성탄절 찬송가 몇 곡을 함께 부르자고 권유한다.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 힝클리 대관장의 메시지에서 몇 문장을 읽어 준다.

3. 각기 다른 종이에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호칭을 적는다. 여호와, 생명과 평강의 왕자, 사랑하는 아들, 구세주, 구원을 주는 분, 기록한 분, 세상의 구속주, 하나씩 그 이름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 주고 각각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토론한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건도 부활의 실재성보다 더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마리아와 엘리사벳

우리는 경전과 수백 명의 특별한 증인들이 전하는 구세주에 대한 간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스티븐 케이 이바

성탄절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흰구름의 기적을 경이롭게 여긴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그러한 구름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새털 구름, 성층 구름, 몽게구름 등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구름은 종종 영적인 존재를 옮기거나 나르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녀를 광야를 지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구름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세계가 끝날 때 구세주께서는 권세와 위대한 영광을 입고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출애굽기 13:21; 사도행전 1:9; 마태복음 24:30 참조)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

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브리서 12:1~2)

절정의 시기에 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유는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충만한 경전들과 수백 명의 특별한 증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분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성탄 절기에 우리는 각별히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전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증거한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간증을 읽



목자들

고 깊이 생각합니다. **마리아**(누가복음 1:26~56; 2:7,19 참조), **요셉**(마태복음 1:18~25; 2:13~23), **엘리사벳**(누가복음 1:41~45), **스가랴**(누가복음 1:67~79), **목자들**(누가복음 2:8~20), **시므온**(누가복음 2:21~35), **안나**(누가복음 2:36~38), **박사들**(마태복음 2:1~12) 및 **고대 미대륙의 사람들**(니파이삼서 1:15~21).

우리는 또한 그분이 오시기 오래 전에

증인들



그분의 강림에 대하여 알았던 사람들에게 의 해 기록된 경전 기록을 검토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절정의 시기에 오실 의로운 심판자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어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자유로이 가르치게 하노니”(모세서 6:55, 57~58, 강조 첨가)

에녹은 주와 이야기하였으니 ... 인자가 육체로 오시는 날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모세서 7:20, 47)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나 아브라함은—주와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드렸고 주께서는—내게 말씀해 주셨더라.—나는 주 네 하나님이라.”(아브람서 3:11, 19)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오심을 보아 반가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힐라맨서 8:17)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모세서 1:31)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더냐?”(힐라맨서 8:14)

구세주께서 **야벳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아는 고로 타락으로부터 구속되었느니라 ... 그리하

여 내가 너에게 나를 보였느니라 ...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서3:13, 16)

이사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이사야 9:6); “(나의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이사야 6:5)

시현에서 **부친 리하이**는 “하늘 한 가운데서 어떤 분(예수 그리스도)이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니파이일서 1:9)

니파이: “눈을 들어 그 처녀를 봄에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일서 11:20~21) 니파이는 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의 동생 야곱도 내가 보았던 것같이 역시 구속주를 보았으며”(니파이이서 11:3)

야곱: “주님께서 몸으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리라 ...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 육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붙이사 만민을 위하여 죽으심이 지당하심이라 ... 주는 ... 모든 인간을 구하시러 세상에 오시나니—”(나이 9:5, 21)

아빈아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

람들에게 임하시며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모사이야서 13:34)

엘마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 뽑힌 그릇이요 청결한 처녀인 미리아에게서 나시리라.”(엘마서 7:10)

그분의 부활 이후로 있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오늘날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경전 기록 및 교회 역사 연감 속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요한복음 20:16, 강조가 첨가되었음)

11명의 사도들이 모였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26, 28)

섬으로 추방된 **계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 세계 토록 살아 있어”(요한계시록 1:17~18)



야벳의 동생



아빈아다이



마리아

간증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맨 나중에 …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8)

선임 사도인 베드로가 확고하게 증언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드로후서 1:16)

고대 미대륙의 바운티풀 도시에 모인 2500명이 앞으로 나아가-“한 사람씩 …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 알아 증거하였”습니다.(니파이삼서 11:15)

몰몬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 주께서 나를 방문하시매 내가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몰몬서 1:15)

모로나이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내가 말하였으며”(이더서 12:39)

15세 된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다른 한 분을 가리키며-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서 2:17)

오하이오 주 하이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1793~1876)은 천국의 시현에 둘러싸여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이는 우

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3)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성전을 헌납한 이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1806 ~1850)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시되-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2~4)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1814~1901)은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곳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 가량 떠서 서 계셨다. 그분이 마치 순금 접시 위에서 서 계신 것처럼 보였지”(르로이 씨 스노우의 “나의 부친의 한 경험”에서 인용, 1933년 9월 임프르브먼트 이라, 677)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나니, … 이 수많은 무리가 …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되라.”(교리와 성약 138:11, 18)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은 존 테일러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나의 전임자인 존 테일러는 ‘내가 그분을 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사회의 기본 단위-가족을 강화함”-엔사인, 1978년 5월호, 48쪽)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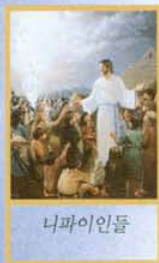
이 시대의 선임 사도의 간증

“내가 그 무엇 보다도 특별히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자,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입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명 받은 그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증거를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모범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교사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지도자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

그분은 아픔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죽음에 따르는 영원한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저와, 우리 각자, 하나님의 모든 아들



니파이인들



요셉 스미스



과 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빛과 이해, 발전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저의 감사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에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요한복음 14:6 참조)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나의 간증”, 리 아호나, 2000년 7월호, 83, 85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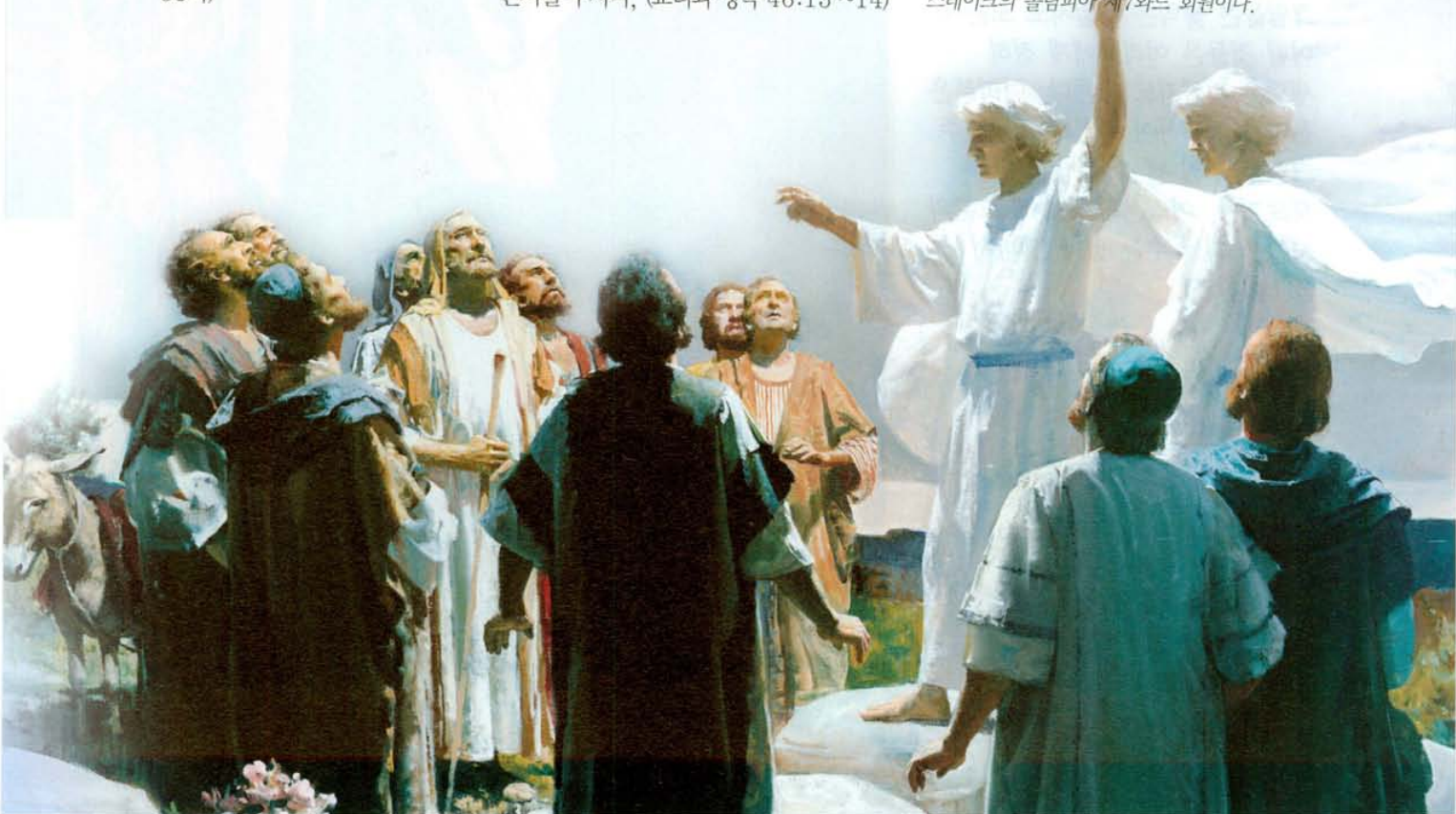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런 간증은 영의 은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은사를 주시며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는] ... 은사를 주시며,”(교리와 성약 46:13 ~14)

만일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우리가 현대 예언자들의 말씀과 거룩한 경전을 읽고 상고하는 동안 영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해 주십니다. 말일의 사도와 예언자들은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구세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에 대하여 간증할 때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구름같이 허다한 영광스러운 증인들의 일부가 됩니다. □

스티븐 케이 이바는 솔트레이크 올림피아 스테이크의 올림피아 제7와드 회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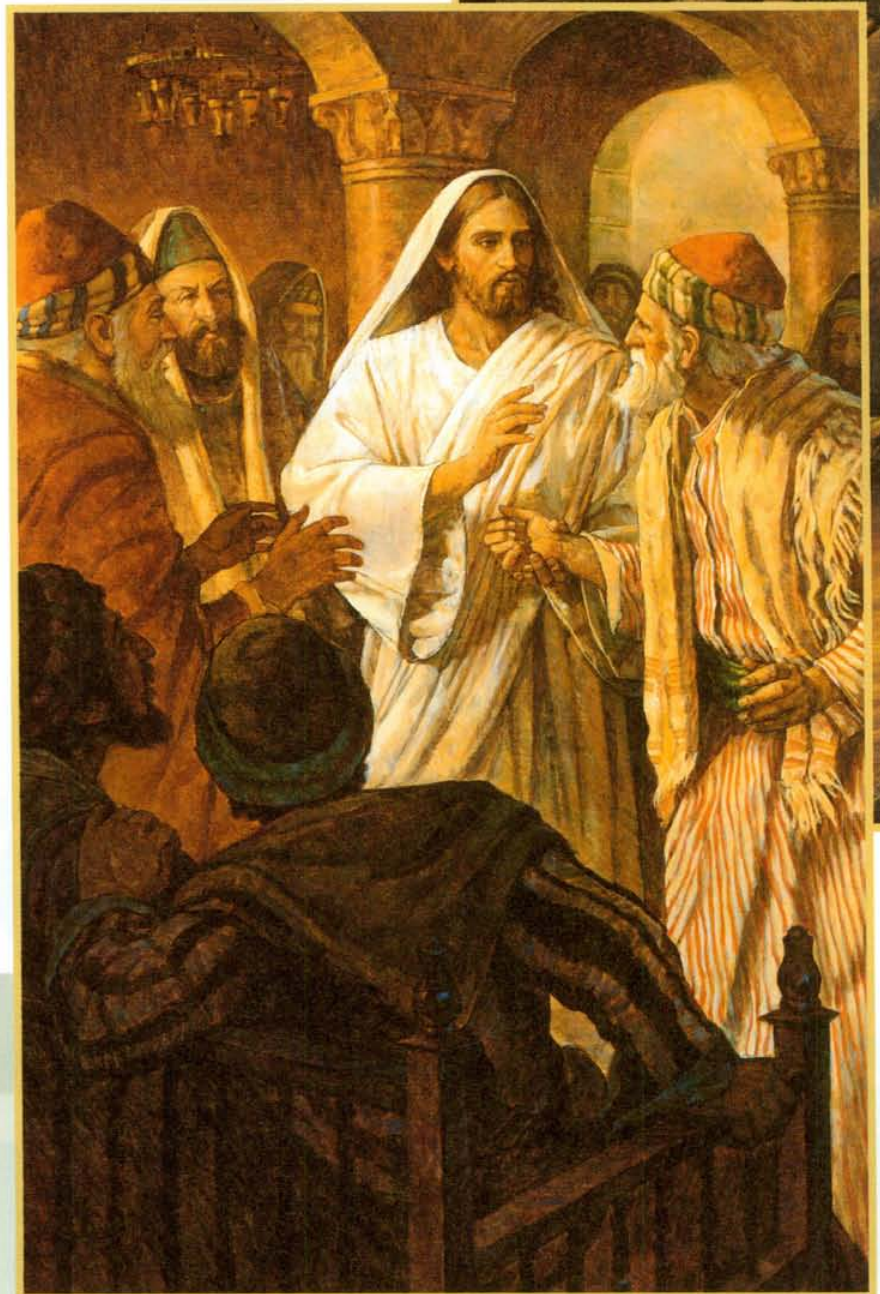
말일성도 화가들이 그분에 대해 증거하다

우리는 저마다 구세주의
생김새가 어떤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음 속의 그림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저마다
그분을 그린다면 각기 다른 모습의
그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정말
모르지만, 그분의 탄생을 경축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말일성도 화가들이 붓을 들어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간증과
사랑을 표현해 왔다. 일부 이러한
그림들은 낯익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물감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구세주
그림을 그려 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습에 그분의
모습을 지닐 수는 있다. (앨마서
5:14 참조)

그림: 로버트 티 배렛,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마태복음 12:13)





우티 주 아메리칸 포크, 플터스 파인 아트 세팅

그림: 시몬 듀이, 잔잔한 물가에서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니라.”(요리와 성약 11:28)

로버트 티 배릿

“저는 예술이란 그 예술가가 믿는 것의 반영이라고 항상 느껴 왔습니다. 저의 간증은 구세주의 생애와 회복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할 기회를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분의 사업이 신성하다는 것

을 압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느낌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여러분 마음 속의 느낌을 화폭에 담는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몬 듀이

“저는 영이 제게 증거해 주는 대로 그

진리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저의 구속주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가 또한 저의 아버지이시며, 제가 매일의 도움에 대한 감사와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부를 때 제 말에 귀를 기울어신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하나님

의 아들을 그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시
현이나 비슷한 영적인 나타나심을 본 적
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결코 저의 눈으
로 본 적이 없고 저의 귀로 들은 적도 없
지만, 저는 제 마음 속으로 그것을 알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데릭 헉스테드

“저는 붓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비로소 가장 훌륭한 화평을 느낍니다.
제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제 장

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구세주를 증거할 능력
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 간증과 제 삶에
미친 예술의 영향에 대하여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살아 계
심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여 주었기를 희
망합니다.”

게리 캡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



그림: 데릭 헉스테드, 여행의 끝

“나의 왕국으로 나를 찾아와 나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리라.”(니파이삼서 28:3)



그림: 게리 엘 캡,
“너희는 알리라”

“일어나 내게로 와서 ...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 입을 알라.”(니파이삼서 11:14)



그림: 그레그 올슨,
아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므온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누가복음 2:28~30)

지 않은 기억은 전혀 없지만, 선교 지역에 도착해서야, 특히 물문경을 통해 그분의 생애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에 진실로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확실한 지식에서 오는 타는 듯한 느낌을 가슴 속에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 생애 동안 저는 미술을 통하여 제 간증을 전하는 것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자 소망해 왔습니다. 저는 구세주에 대한 제 사랑이 제 작품에서 분명히 드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그레그 올슨

"언덕 위에 놓인 빛이 피곤에 지친 여행자들에게 햇불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나는 모범으로 우뚝 서 계셔서 우리에게 화평과 행복으로 가는 더 나은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의 빛은 생명의 길을 비추어 우리를 곧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면에 그들 자신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그분은 실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주디스 메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세주이며 저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죽은



그림: 주디스 메르, 구세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마가복음 5:34)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제 가족과 함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자신을 희생시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의 간증 속에 존재하는 것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그분이 함께하심을 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존재하심과 저에 대한 그분의 지고한 사랑을 결코 부인할 수



그림: 월터 레인, "나를 기억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시오"(누가복음 22:19)

없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합니다."

월터 레인

"물론 저는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그럴 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림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의 다른 사건을 묘사하며, 구세주의 개성의 한 다른 면을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러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식이로나마 구세주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포착하여, 그분의 개성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지도 모를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델 파슨

"그리스도는 저의 영웅입니다. 저는 그분과 그분의 생애에 관해 즐겨 읽습니다. 미술을 통해 그분을 그리려고 노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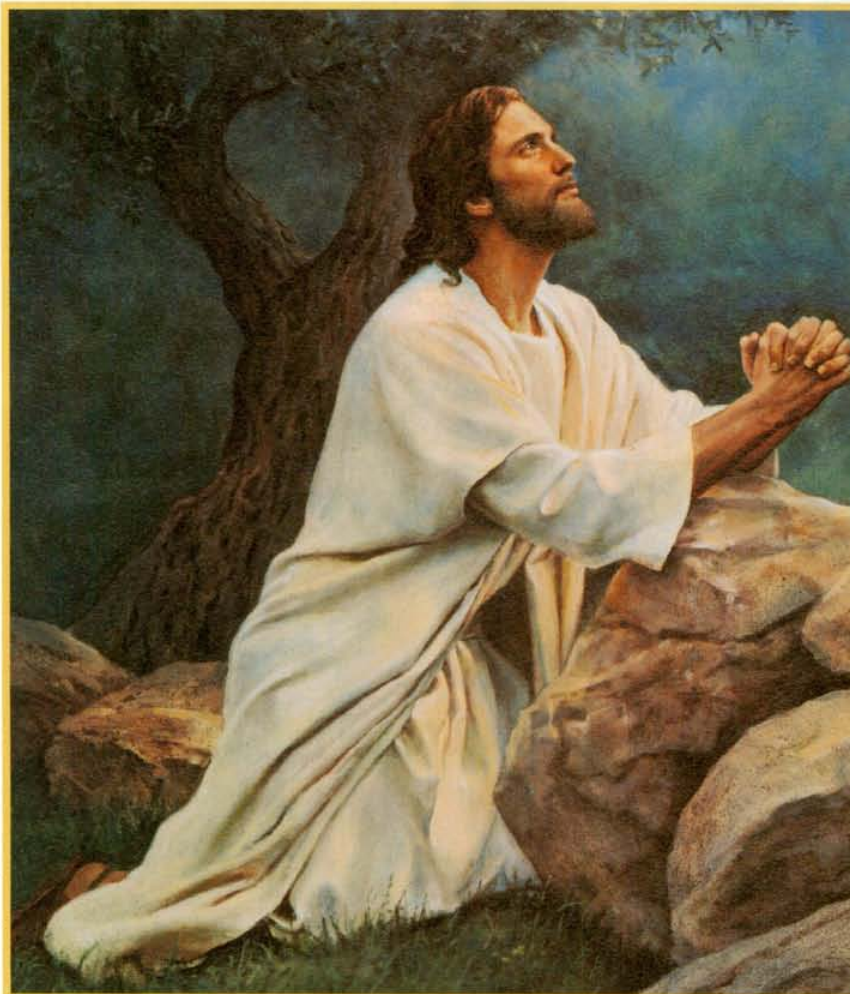


그림: 델 파슨,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민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민의 고통을 맞보셨고(교리와 성약 18:11)

올로리다 주, 베니스, 밀 폰드 출판사의 신앙의 시선 수집으로부터.

며, 그 때마다 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미술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주어진 인도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작품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의 경력 초기에 저의 아내와 어린 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신이 저에게 위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구세주를 그릴 때 표현하려

고 애쓰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미네르바 케이
타이체르트(1888~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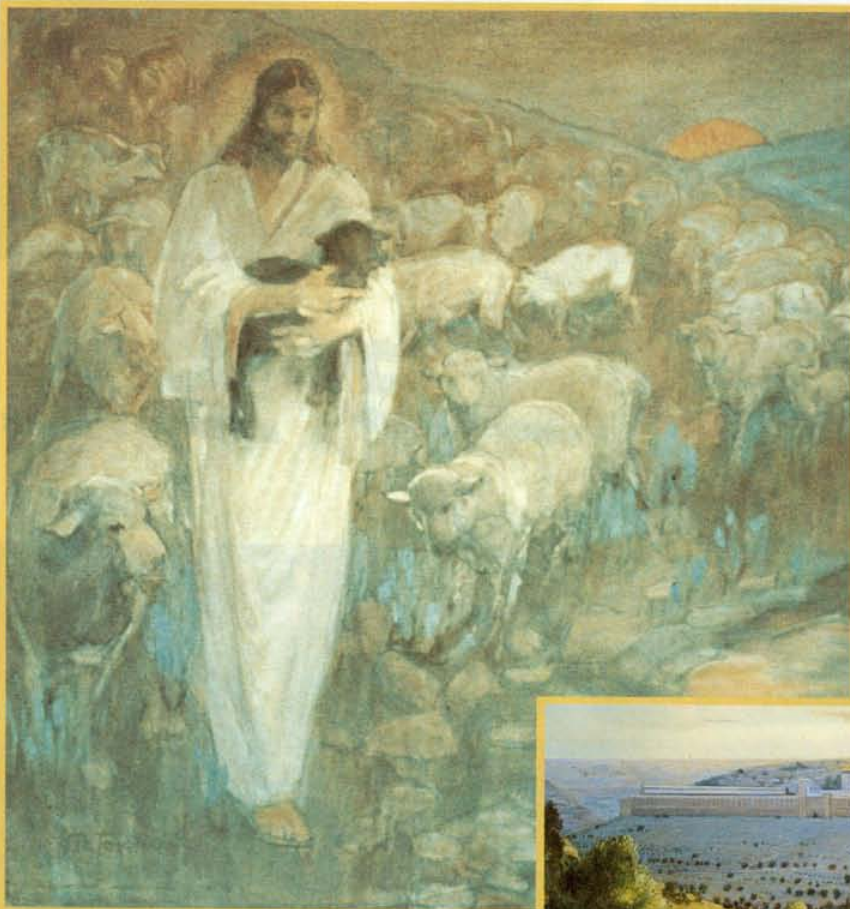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선행,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첫째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콘라드와 프레데릭 타이체르트에 의한 인터뷰, 1974년 2월 6일)

“주님은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이 열려 있

는 문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문은 대체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그 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훨씬 지나서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리 이 스미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 마음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25살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마치 퍼즐의 못 찾고 있던 부분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아직도 소년 시절에 제가 가졌던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혜와 성숙, 경험과 함께 그 신앙이 우리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대한 더 깊고 더 심오한 이해를 갖게 해 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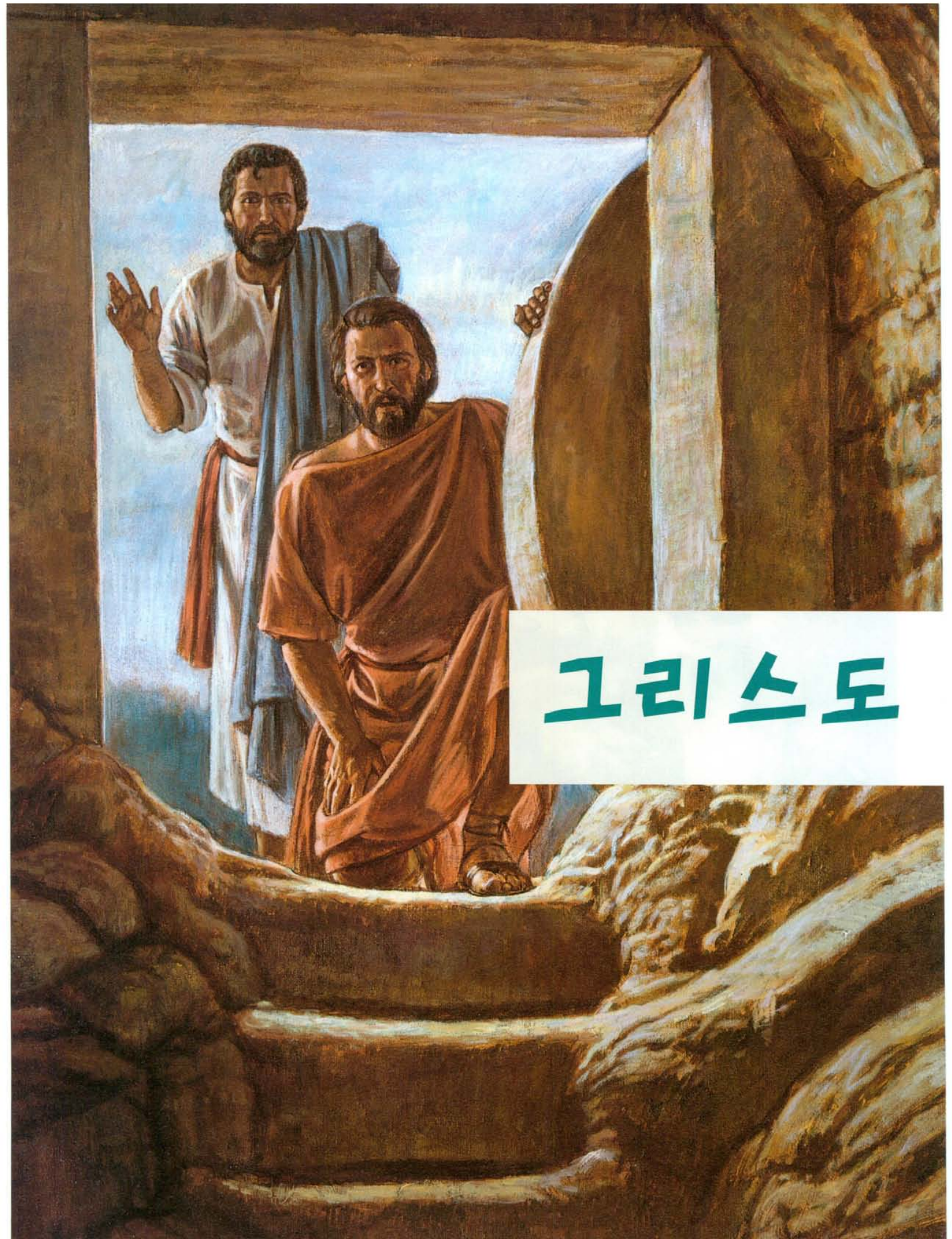
잃은 양 구하기, 미네르바 케이 타이체르트 작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한복음 10:11)

그림: 게리 이 스미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통해 하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3:34~35)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요한 에이 윈드라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제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두 선교사가 우리 집 문 앞에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면서도,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수천 명의 피난민들을 들어오게 한 1956년 헝가리 혁명에 깊은 영향을 받아 저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답을 어떠한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앙으로 승리”(교리와 성약 76:53)하고 희망과 낙관을 품고 나아갈 힘을 줍니다.

작별의 상처

아내와 저는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들 게오르그를 잃고 나서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새로 조직된 오스트리아 비엔나 남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부에는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 갈라져 나온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선교사 지역 모임을 가진 후에, 윈드라 자매와 저는 집으로 전화하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자 사랑하는 며느리 레지나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 게오르그가 죽었어요. 게오르그가 죽었어요”라며 영혼의 비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뒤이은 광범위한 조사에서 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번도 심하게 아파 본

에게서 희망을 찾음

이 선교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들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그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가 순교할 당시의 상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어 물문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요셉 스미스가 회복의 예언자였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이 이끄는 지상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라는 기쁘고 평화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40년 이상을 교회 회원으로 지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화평과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많은 개인적인 경험을 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 필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겨 내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의학적인 설명도 없이 아들의 심장이 그냥 멈추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게오르그는 기쁨과 생기로 가득찬, 우리 부부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순수하고 아무런 가식이 없는 너무나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1989년에 그는 선교 사업을 위한 훌륭한 시간이었던 기간 동안 동독으로 파견된 첫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참여했던 침례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했지만 결코 침례 숫자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계 숫자로 귀결시키기에는 너무나 거북하다고 느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보내온 게오르그의 첫 편지에서, 그는 “저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저 없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가 죽던 날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 “사망을 이긴 승리”를 읽고 다음 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얼마

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애통해 하는 미망인, 어머니를 잃은 자녀, 가족을 잃고 혼자된 아버지—이들은 모두 이 별의 아픔을 말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1997년 4월호, 3쪽)

우리 가족은 이 상처로 고통 받았습니다. 우리는 게오르그를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겻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텅 빈 무덤의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슬픈 순간 동안에, 심지어 무엇이 왜 일어났는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하나님이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속에는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셨는데,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니파이일서 19:9) 때문에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게오르그가 죽고 몇 주 후에 아내와 나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여행하며 밀레세바 수도원에 있는 백의의 천사 프레스코화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의 하나인 이 프레스코화 그림은 여태껏 말해진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이 메시지는 수세기의 폭정과 파괴로 점철된 그들의 역사에서 훌륭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르비아의 친절할 백성들이 위안을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게 진실되고 영속적인 위안을 줍니다.

최후의 만찬의 밤에—그분에 의해 창조된 모든 세상에서 그 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의 밤에—그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평안, 곧 그분의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 같은 상황에서 그분은 어떻게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직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요한일서 4:18) 때문에 가능했다고 느낍니다. 중보의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포함하셨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

이니이다”(요한복음 17:20, 23, 26)

그 다락방을 떠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기드온 계곡을 지나 감람산의 좀더 낮은 경사면에 있는 감람나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산은 겻세마네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기름짜는 기계”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맛이 쓰지만 “기름짜는 기계”로 압착하면 그 기름이 감미로운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분에게 다가간다면 모든 쓴 맛이 우리의 생활에서 제거되고 감미롭게 될 수 있도록 그 “쓴 잔”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니파이삼서 1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 세상의 모든 고뇌와 슬픔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이사야 53:3~4)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와 슬픔의 무게를 자신의 죄없는 영혼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는 아픔을 느끼게 한 육체적 고통도, 또는 정신적인 고뇌만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고뇌였다.”(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13쪽) 그분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심지어 그것이 겻세마네에서의 고통만큼 고통스러우실 때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아들의 궁극적인 바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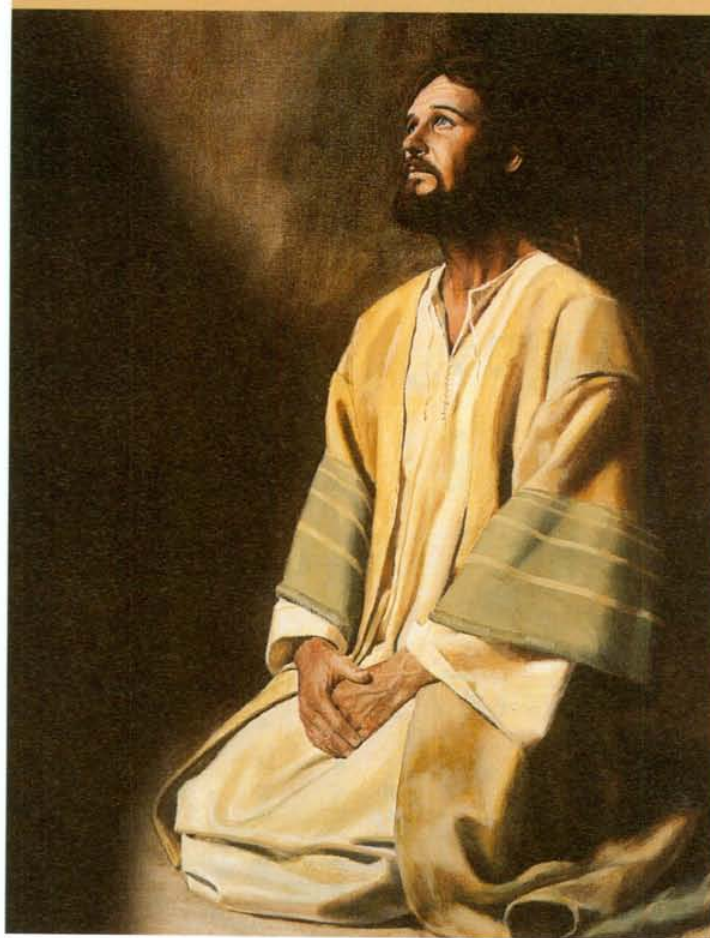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9)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겻세마네에서 겪은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불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편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슬픈 순간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신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우리 인생에서의 이러한 쓰라리고 슬픈 순간들은 야곱의 사닥다리의 계단처럼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면전으로 이끌 것입니다.(창세기 28:12~13 참조)

영광스러운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5~16)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

게 온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복음 20:17)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떠나서 그분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 경이로운 장면을 되풀이하여 계속 상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모든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육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모두 다 우리 자신의 부활의 날에 영광 육신의 재결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 쪽) 얼마나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입니까! 생명은 영원합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하는 관계는 무덤 너머로 계속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게오르그와의 관계에서도 참된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강해지고 그분의 다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진 것은 아내와 제게 하나의 기적입니다. “산이 떠나고 작은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성약도 옮겨지지 아니하리라(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현재 물문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음). 네게 자비를 행하신 주의 말씀이라.”(니파이삼서 22:10)

제 모든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

요한 에이 윈드라 장로는 유럽 중앙 지역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 성지에서

간절히 ♩ = 64-80

mf

1. 거룩한 성전에는 하
 2. 이곳에서 배우는 창
 3. 성전에 서 우리는 조

slower *a tempo*

늘 빛 가 득 해 이 곳 에 서 우 리 는 진 리 를 배 우 네
 조 의 계 획 을 이 곳 에 서 느 끼 는 하 리 들 의 권 봉 세
 상 을 기 억 해 성 스 런 신 권 으 로 우 리 들 은 하
 는 네

하 나 님 권 능 으 로 거 룩 한 곳 에 서 영 원 토 록 우 리 들 은 하
 무 릎 꿇 고 경 건 히 주 와 성 약 맺 서 네 주 님 의 영 이 우 리 와
 리 선 조 들 에 게 마 음 을 들 리 네 아 름 다 운 이 곳 에 서 기

나 가 되 네 배 음 과 신 앙 의 집 영 광 스 런 곳
 함 께 하 도록 음 과 신 앙 의 집 영 광 스 런 곳
 빠 게 하 도록 음 과 신 앙 의 집 영 광 스 런 곳

f

(Sing harmony last time only.)



기 도 와 평 화 의 집 주 님 이 계 신 곳 성 전 축 복 받 기 에 나
 기도 의 집 주 님 계 신 곳 성 성 전 축 복 받 축 기 에 나 복

합 당 하 도 록 순 결 한 영 언 제 나 간 직 하 리
 합 당 하 도 록 순 결 한 영 언 제 나 간 직 하 리

라 간 직 하 리
 라 간 직 하 리

slower *slower*

작사 및 작곡 : 셸리 디포드, 1959년생
 © 셸리 디포드 관련 소유,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교리와 성약 88 : 119
 교리와 성약 97 : 15~16

사진 촬영, 스티브 트리기글



질 의 응 답

왜 교회에서는 16세가 되기 전에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나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주님의 예언자들은 청남과 청녀들이 서로의 관계를 합당하고 가치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권고를 주셨습니다. 데이트가 용인되는 문화권에서 16세 이전에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도 그

권고에 포함됩니다.

적어도 16세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데이트를 하고 싶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여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언자를 통해 이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권고에 따를 때 오는 축복은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16세 이전에 하는 데이트는 “부도덕으로 이끌고, 만나게 될 다른 청소년들의 수가 한정되며, 영원한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4 쪽)다고 가르쳤습니다.

십대 초기에 시작되는 정서적, 사교적,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은 수년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16세 이전에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일찍 데이트를 할 경우, 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대 초반에 이성에 대한 강한 욕구와 더불어 강한 연애 감정을 갖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느낌을 다룰 정서적, 정신적 성숙함을 개발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너무



사진: 심화: 존 루크



데이트 표준

주님께서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서로에게 매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통제받지 않을 때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아름다우나 제멋대로 놓아두면 치명적입니다.

“교회에서 이른 데이트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지킨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한 사람하고만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은 종종 비극을 불러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년 소녀가 데이트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 여러분,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되, 성적으로 친밀해지는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제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8~39쪽 □

일찍 데이트를 시작할 경우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정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분을 쌓아야 할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한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 청년들을 알게 되면 장차 데이트를 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사교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16세가 된 후에도 그룹으로 데이트를 하고 한 사람의 파트너와 단 둘이 데이트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결국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결혼 상대자로 고려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16세가 한참 지난 후에도 데이트를 할 마음이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행복하고 정상적인 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엔, 심지어 결혼 적령기까지 데이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권고하는 지침에 따르는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날들이 스트레스가 덜 하고,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엘마서 41:10 참조) 순종에서 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성전 결혼을 위해 더 훌륭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담

16세가 될 때까지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염려하시며, 그분의 예언자들도 우리를 염려합니다. 16세가 되기 전에 데이트를 한

다면, 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연령에 이를 때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함과,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과,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나디아 앙투아네트 레이테그 리베라, 13세,
페루 리마 라 몰리나 스테이크
라스 비냐스 지부*

제가 어렸을 때 데이트를 했다면 영을 동반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은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 과정이므로, 데이트를 하는 데 현명해야 한다고 하신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애머시 시 실비노, 16세,
필리핀 가펜 스테이크
산토 크리스도 와드*

이 표준은 우리가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 사람하고만 계속 데이트를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16세가 되면 좀더 책임감도 생기고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반자 장로, 21세,
콩고 공화국 킨샤스 선교부*

남녀 사이에 신체적인 매력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느낌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거짓되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16세가 되기 전에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러한 감정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으며,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페올로 투포우, 18세,
통가 누쿠알로파 노스 스테이크
누쿠알로파 제8와드

어린 나이에는 사람이 아직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때로 호기심이나 압력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현명한 권고와 충고를 해줌으로써 많은 무서운 잘못들을 피하도록 도와 줍니다.



나탈리아 표도로브나
프롤로바, 21세,
러시아 시라토브 지방부
시라토브스키 첼트랄니 지부

저는 진지하게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진정 영원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난 후에 결혼에 대해 생각해 합니다. 우선 상대방 없이 자신이 성숙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암 리비히, 23세,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로엔부르크 지부

세상은 데이트를 그릇되게 보고 있습니다.

다. 무시되는 데이트의 가치를 완전히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16세가 지나서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아는 일은 보람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적인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엘리사 코레아, 19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모인호스 데 벤토 스테이크
후마이타 와드

데이트는 결혼을 준비하게 해 주며, 교회에서는 우리가 16세가 되어야 데이트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인지 대체로 이해할 만큼 성숙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또한 높은 표준을 지니고 있으며, 표준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엠마누엘 엔 에이 솔로몬
장로, 22세,
나이지리아 포트 하커트
선교부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선교 사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데 십대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경험들을 할 준비를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마우리시오 임브로이스,
18세, 브라질,
마세이오 스테이크
베네디토 벤텔스 와드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 엿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를 활용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사탄을 이겨 내야 합니다.



에르 트리니다드 구에레로 솔
리스, 20세,
멕시코 시우다드 오브레곤
야키 스테이크
푸에블로 야키 지부

질의 응답은 청소년 특집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보내 온 응답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게재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3년 1월 15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5/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민감한 것이라면, 게재할 때 성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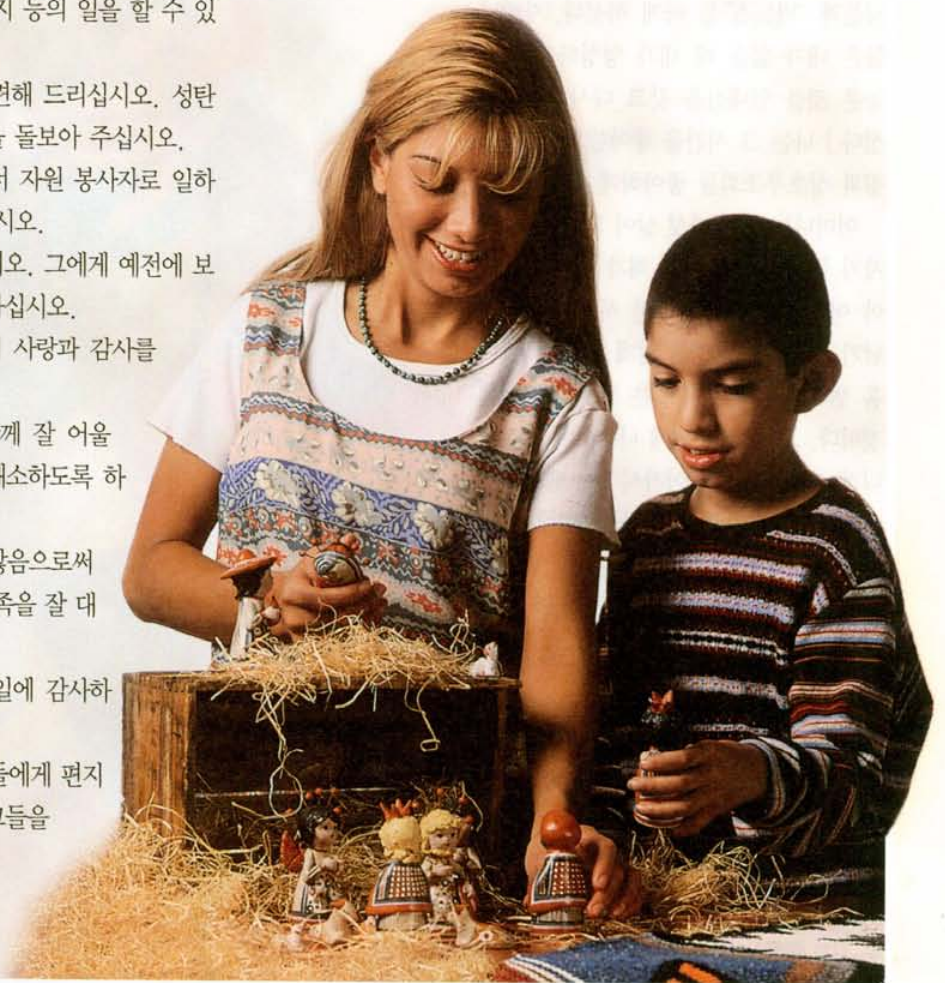
질문: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친형제 자매들에게 줄 선물을 가게에서 샀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개인적이며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

값진 선물

마음이 담긴 선물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생각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금년에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 ✧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 날 하루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친절한 일들을 하며 보내십시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선물을 포장해서 전달하거나, 저녁을 먹은 후에 설거지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부모님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십시오. 성탄절기 동안에 시간을 내어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 ✧ 노숙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거나 다른 가치 있는 일에 도움을 주십시오.
- ✧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방문하십시오. 그에게 예전에 보냈던 성탄절에 대해 말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 기도할 때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 ✧ 성탄절은 평화로운 절기입니다.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 ✧ 여러분은 친형제 자매간에 다투지 않음으로써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족을 잘 대하도록 하십시오.
- ✧ 부모님께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신 일에 감사하는 편지를 쓰십시오.
- ✧ 와드나 지부에서 나간 전임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 ✧ 아무도 모르게 형제나 자매의 침상을 정돈해 주십시오.

- ✧ 부모님이 함께 외출하여 성탄절 공연이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기를 돌보아 주십시오.
- ✧ 어린 동생들에게 성탄절 이야기를 읽어 주고 구세주에 관해 가르쳐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참조)
- ✧ 금년 성탄절에 돈이 들지 않는 선물을 줌으로써 다음달에 후한 금식 현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사랑에 싸여

보니 대니얼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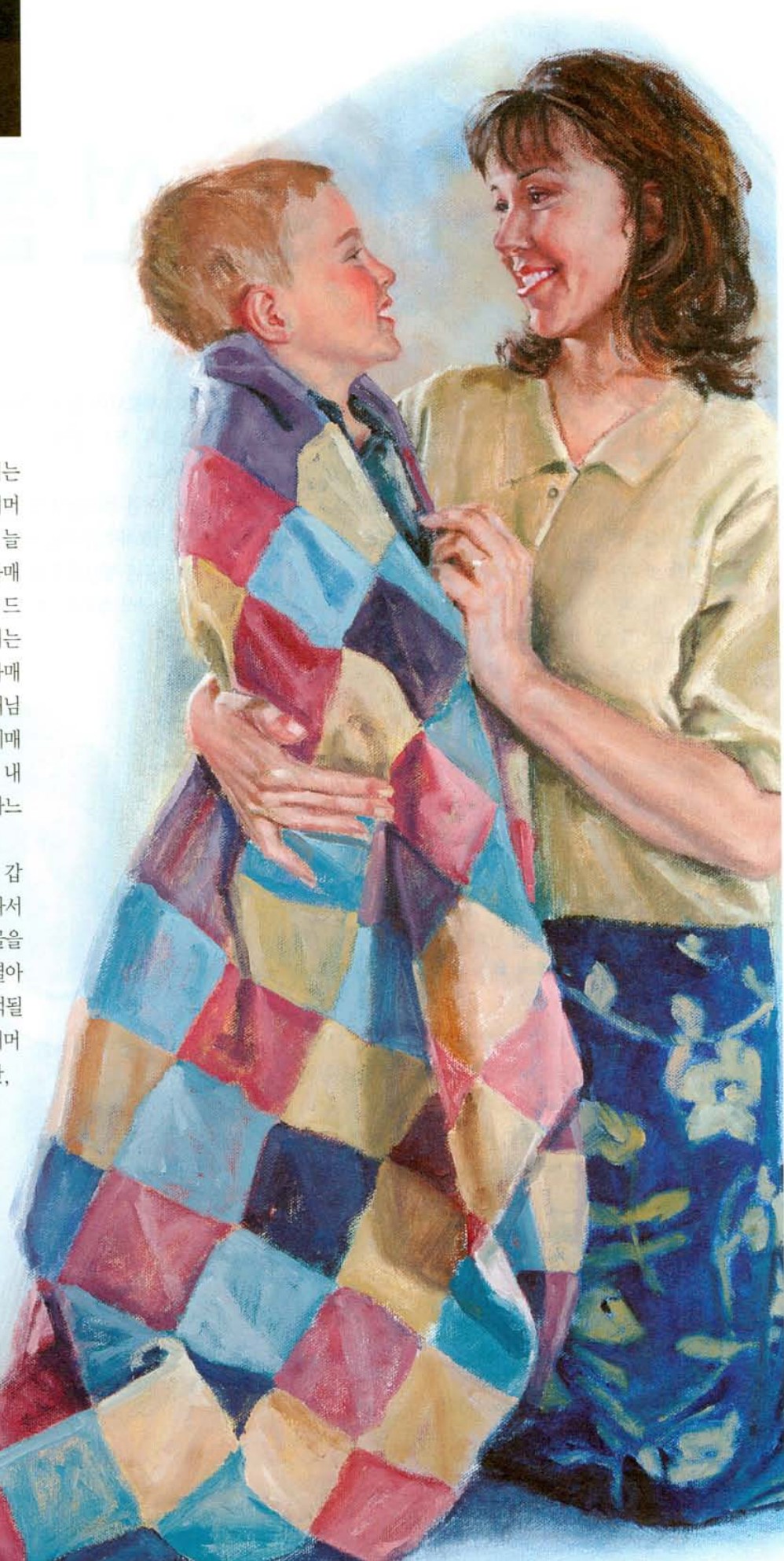
내가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워드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다. 어머니가 맡은 책임 가운데 하나는 집에서 늘 누비이불을 만드는 일인 것같았다. 자매님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하실 방을 드나들며 누비이불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종종 바늘에 실을 꿰어 내게 주며 자매님들과 “바느질”을 하게 하셨다. (자매님들은 내가 없을 때 내가 영성하게 꿰매 놓은 것을 인내심을 갖고 다시 뜯어 내셨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했으며, 바느질과 상호부조회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게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아홉 번째로 보낸 성탄절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해 성탄절에 나는, 비록 어머니가 14년 전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어머니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별안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누비이불을 갖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이불을 퍼서 아들의 몸에 감았다. “이걸 엄마가 갖고 있는 건 비록 외할머니가 하늘 나라에 계시지만 널 이렇게 안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개의 특별한 누비이불 덮개를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는 오빠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 만들어 두셨다. 어머니는 드레스와 셔츠를 만들고 남은 작은 천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천을 붙여 누비이불을 완성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이다.

내가 열아홉 살이 되던 해에, 언니는 오빠와 나를 위해 이불을 완성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와드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그것을 완성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자매님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인지도 모르는 채 정교한 솜씨로 바느질을 했다.

누비이불을 받던 성탄절 날, 나는 얼마나 그 선물을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결혼을 하고 내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 누비이불이 손상되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잘 접어 비닐 봉지에 넣어 옷장에 보관해 두었다. 어느 날 그것을 꺼내 어루만지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이 들어와서 그거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할머니가 누구야?” 하고 어린 아들이 물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를 내 아이들이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그들을 끌어안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나는 아들에게 다시 외할머니는 하늘 나라에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엄마, 근데 그 이불은 왜 갖고 계시요?” 하고 아이가 물었다.

별안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누비이불을 갖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이불을 퍼서 아들의 몸에 감았다. “이걸 엄마가 갖고 있는 건 외할머니가 비록 하늘 나라에 계시지만 널 이렇게 안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란다.”라고 말했다.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누비이불을 더욱 자주 옷장에서 꺼내게 되었다. 가족 가운데 누구든 아프거나 슬프거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때면 그 누비이불이 커다란 위안의 근원이 되었다. 내가 즐겨 누비이불을 쓰다 듣는 것은 거기에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후로 또 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 나는 누비이불을 제대로 만들 줄 알게 되었다. 나는 언니들과 둘러앉아 누비이불을 만들면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언니들은 막내인 나에게 어머니에 관해 좀더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열아홉 살 되던 해의 성탄절에 받은 누비이불만큼 나의 마음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어머니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보니 대니얼슨은 애리조나 주 캔들러 엘마 스테이크 런초 델 마르 파크 와드 회원이다.

성탄절의 생활

줄리아 마리아 코르테스 데 펠루소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번잡한 상가 지역으로 심부름을 갔다. 다른 사람들처럼 멈추어 서서 사방에 널린 성탄절 장식품을 구경했다. “저 장식품들만 있으면 성탄절을 위해 집을 잘 꾸밀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작은 광장에 정차했다. 벤치에는 멋진 옷과 구두로 잘 차려 입은 한 멋진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긴 머리와 수염을 기른 그 노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노인의 옷은 남루했으며 구두도 없었다. 벤치가 그의 집인 듯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눈에 띄는 차이점, 즉 외모,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었다. 특히 노인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으며, 참으로 그 대화를 즐거워 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성탄절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 곳에는 반짝이는 불빛도, 장식물도, 화환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다. 다만 시간을 내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

는 어느 젊은이의 선물만이 있었다. 그곳에는 경멸이나 편견, 이기심, 차별, 오만함이 전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러한 선물이라면 우리가 일 년 내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희망의 작은 불빛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불빛을 밝힐 수가 있다.

다시는 성탄절의 뜻에 벗어나는 어떠한 성탄절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다짐했다.

줄리아 마리아 코르테스 데 펠루소는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 빌라 엘비라 스테이크 빌라 엘비라 와드 회원이다.

에콰도르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칼 그로센

새 전임 선교사였던 나는 봉사 지역인 에콰도르 과야킬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척 보고 싶었다.

나는 이 곳의 성탄절이 내게 익숙한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칠면조 요리, 선물, 불빛, 캐롤 등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나는 내가 보낸 성탄절 전통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동반자와 나는 성탄절 절기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절박하다는 새로운 느낌과 더 큰 책임을 느꼈다.

12월 어느 날 우리는 토레스 씨의 초

라한 집 문을 두드렸으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우리에게 8년 동안이나 진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다. 동반자와 나는 두 달 동안 이 집 앞을 지나치면서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토레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늘 당신

들을 불러 세우고 어떤 교회인지 물어 보고 싶었지만, 당신들은 항상 바쁘게 지나가기에 저를 만나기에는 너무 바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기도는 응답되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토레스 씨와 그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토레스 가족의 침례식에서 나를 위한 성탄절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동반자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결국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던 어느 날, 네 번째로 토레스 씨 가족을 방문하던 그 때 우리는 한 시라도 빨리 그들이 보고 싶어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막 문을 두드리려 할 때 우리는 창문을 통해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방안에 모여 앉은 가족의 사랑스런 눈과 붉은 불, 온화한 얼굴에서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마구간에 머문 한 작은 가족 이야기를 말해 주는 성탄 인형들이 서 있었다. 어린 두 딸은 우리가 주고간 책, 복음 원리를 읽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여덟 살 된 장남 빅터는 아버지가 실로폰으로 “고요한 밤”을 연주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빅터가 우리를 보고 뛰어 나와 인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스페인어로 “고요한 밤”을 불렀다. 다음에 그 가족은 우리에게 영어로 불러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런 후에 다시 모두 스페인어로 노래를 불렀다.

토레스 자매는 우리가 그 가족과 복음을 나누기 전에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지난 3년 동안 찬장 속에서 먼지에 쌓여 있던 그리스도의 그림과 크리스마스 음악, 성탄 인형들이 밖으로 나와 전시되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가족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12월 셋째 주에, 토레스 부부와 빅터가 모두 흰 옷을 입고 침례의 물가에 들어서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나에게 성탄절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동반자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결국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칼 그로센은 유타 샌디 크레센트 파크 스테이크 크레센트 파크 제3와드 회원이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

루스 엠 앤더슨

나는 이제 중조 할머니가 되었으나, 어린 아이였을 때 보낸 성탄절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14남매였으며 농촌에서 살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 무척 가난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몰랐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한 가족이 있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타지에 나가 일을 했다.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돌보았다.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개봉하고 나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이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새로운 선물 가운데 하나씩 골라 이 가족에게 줄 음식과 다른 과자들과 함께 상자에 담도록 제안하셨다.

나는 세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인형과, 목걸이 그리고 옷이었다. 그 중 한 가지를 골라 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른다. 옷은 꼭 필요했고, 인형은 너무나 무 갖고 싶었고, 목걸이는 너무나 예쁘고 반짝거렸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마지못해 목걸이를 상자에 집어 넣었다.

성탄절 저녁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코트를 입히고 모두 말이 끄는 썰매에 태우셨다. 우리는 이 상자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그 가족 문 앞에 놓아 두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 나는 내 또래의 여자 아이 목에 그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신이 나서 성탄절 저녁에 산타가 그들에게 선물 상자를 주고 갔다고 나에게 말했다. 물론 부모님은 우리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하셨다. 아빠는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 목걸이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 그처럼 좋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쉬운 교훈이 아니었지만, 그 때의 경험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는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내게 한 가지 선물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내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인가. 사랑에 대한 아버지

의 모범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루스 엠 앤더슨은 유타 노스 로간 그린 캐년 스테이크, 노스 로간 제3와드 회원이다.

그녀는 빛을 가져왔다

무리엘 로빈슨

우리는 여러 해 전에 남편이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유타 주 프로보로 이사를 했다. 이사에 앞서 남편은 그 곳으로 가서 이동 주택을 구입한 뒤, 수도, 가스, 전기 등을 설치하여 우리가 이사해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추운 12월 어느 날 밤에 프로보에 도착했다. 모든 가재 도구가 빌린 트럭 뒤에 실려 있었다. 우리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임신 6개월 중이었던 나는 청소하고, 짐을 꾸리고, 여행하느라 피곤했다. 15개월 된 딸 사나는 피곤에 지쳐 울었다.

우리 집 문을 열었을 때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전기와 수도는 들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가스는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지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팔꿈치까지 온통 비누 거품을 묻힌 한 여인이 떨면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아말리아 반 타셀이라고 소개하며, 영이 그녀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깔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전기 담요를 켰다. 우리는 딸을 가운데 누이고 잠을 청했지만,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 때와 마찬가지로 피곤한 상태였다.

트럭에서 짐을 내린 후에, 남편은 트럭을 되돌려 주고, 가스 회사에 확인을 하고,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나는 사나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내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장난감을 갖고 놀도록 의자에 앉혀 놓았다.

전기 프라이팬을 풀었을 때, 나는 그것으로 물을 데워 찬장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엌 싱크대의 수도를 틀자 수도꼭지가 빠져 나와 물이 공중으로 뿜졌다. 싱크대 아래에 있는 밸브를 잠그려고 했지만 잠금 수가 없었다. 나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차단 밸브를 찾아내어 내렸다. 물이 멈추었을 때 부엌과 거실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물에 잠겨 있는 박스들을 필사적으로 옮기는 데, 사나가 공포를 느끼고 비명을 질러댔다. 한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팔로는 계속 박스를 옮기려 했다.

그 순간 조산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이 순간 나는 정말 공포에 질렸다. 아는 이웃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며, 도움을 청할 전화도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세요."

잠시 후 밖에서 들려 온 노크 소리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팔꿈치까지 온통 비누 거품을 문힌 한 여인이 떨면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아말리아 반 타셀이라고 소개하면

서 영이 자신을 이 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나는 아말리아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새로 이사 온 가족에게 가 보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긴급한 일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고, 큰 딸에게 동생들을 돌보라고 일러 두고는 손을 씻거나 코트를 걸칠 생각도 못하고 우리 집으로 달려온 것이다.

아말리아는 나를 눕히고, 사나를 달래고, 치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치우고 나서, 우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암울하던 12월의 어느 날 빛과 안 전함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휴식을 취하자 조기 진통이 멎었고, 남편은 싱크대를 고쳤고, 가스 회사 직원은 가스가 나오도록 해 주었고, 휴대용 전기 히터로 젖은 카펫을 말렸다.

나는 그 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속삭임에 즉시 따랐던 사랑이 많은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늘 감사드린다.

무리엘 로빈슨은 유타 오펜 섀넌 하이츠 스테이크 섀넌 하이츠 제3와드 회원이다.

성탄절의 작은 기적

이름을 밝히지 않음

1996년 성탄절 절기에 나는 남부 스페인의 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동반자인 노엘 자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그녀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다.

노엘 자매와 나는 회원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작은 안달루시아 마을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일하고 있었다. 때는 특별한 절기였으며, 거리에서 그리고 와드 회원들에게서 성탄절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노엘 자매와 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 와드에서 작은 성탄절 선물들을 받은 덕에 먹을 것이 많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페르난데스 가족만은 예외였다. 아버지는 실직을 하여 자녀들을 위해 선물을 살 돈이 없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동반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떻게 도와 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와드 회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고향에서 가족이 보낸 과자들을 모두 모았다. 우리가 받은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상냥감을 샀다.

페르난데스 가족은 감격하고 놀랐다. 그러나 작은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작은 봉사 활동 덕분에 동반자와 나는 모든 회원들로부터 더 큰 사랑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동반자로 인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보다 더 필요한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세주의 사랑을 나눌 때 매일 매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노엘 자매에게 늘 감사할 것이다. □

* 이름을 바꾸었음.

우리의 작은 선물



조슈아 디무 삽화: 달린 마쉬

우리가 집을 떠나 처음 맞는 성탄절이었다. 히메여, 브라이트, 키호, 슬츠, 웨스트오버 장로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 위해 한 아파트에 모였다. 우리는 선교 지역 내의 선교사들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다면 집을 떠나 있는 외로움을 좀더 쉽게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5시 30분 경, 우리는 모두 조금은 낙담하고 말았다. 최근 들어 구도자와 약속을 하거나 새로운 구도자를 찾는 일이 어려워졌다. “성탄절 지나고 오세요.” 모두 그렇게 말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슬츠 장로가 구도자들과 몇몇 회원 가정을 돌면서 캐럴을 부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작은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 영적인 말씀을 나눈 후에 다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떠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남부의 차가운 밤거리를 나섰다.

우리가 첫번째로 들른 집은 한 회원이 사는 아파트였는데, 그의 딸과 두 손자가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은 아니었지만, 우리 여섯 명의 장로들이 부른 노래는 제법 괜찮게 들렸다. 계획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자 그 가족은 우리의 “선물”이 그들이 받는 선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고 했다.

잠시 후 우리는 다른 아파트로 가서 다른 가족에게 준비한 것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열의와 기쁨이 커 갔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같은 찬사를 들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족에게 성탄절의 영을 가져다주셨습니다.”

그 날 밤 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 즉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의 전부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구세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집에서 그리 멀리 떠나 온 것 같지 않았다. □

조슈아 디무는 솔트레이크 사우스 스테이크 완다미어 워드 회원이다.

성전 축복을 기뻐함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이사야 2:2~3: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합당하게 준비하여 규칙적으로 성전에 오십시오. 죽은 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과 지혜, 빛, 아름다움,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약속된 개인적인 계시를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로 인하여 여러분과 후손들은 영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천명했던 이러한 축복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며 당신의 영광이 저들

을 둘러싸며 당신의 천사가 저들을 지키게 하시며 (교리와 성약 109:22)

“성전에서 돌아오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바를 가정에서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성스러운 의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며, 대신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과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 여러분이 성전에서 경험한 바를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성전 축복을 받는 데 저해되는 유혹을 물리쳐야겠다는 자극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주님의 집으로 나아오라”,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16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대관장: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자주 방문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

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전까지 거리가 멀어 즉시 또는 자주 성전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려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로 우리가 개인과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성전을 사랑하고 자주 방문하는 백성들”, 성도의 벗, 1995년 12월호, 6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건물에 들어갈 때보다는 나올 때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며 그분의 길을 명상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 곳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스테이크 대회, 잉글랜드 완즈워스, 1995년 8월 27일)

- 성전 의식과 성약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도록 성전에 관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성전 축복에 관한 지식을 통해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성탄절 축하를 하게 되는가? □



의로운 여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앙과 미덕과 비전과 사랑을 지닌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50년간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바바라 보웬이라는 여성을

만났던 날입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그녀를 설득하여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날이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 아들과 다섯 딸을 둔 부모입니다. 다섯 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22명의 손녀를 둔 할아버지로서 어찌면 저는 여성에 관한 주제에서 전문가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 메시지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내와 딸, 그리고 교회에서 더불어 일하고 봉사할 특권을 가진 동료 여성들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본부로 보내 온 편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제는 깊이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을 감히 드러내 본 적이 없으며, 매주 교회에 갈 때마다 나타내 보이는 커다랗고 확신에 찬 미소 뒤에 숨겨 두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제 역할 이외에 제 자신이 또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저는 남성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이 존재함은 간과되기 위한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여성인 제 자신이 주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충실한 여성의 염려의 근거가 되는 문제에 대해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여성을 존중하십니까? 여성은 주님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확고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치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세계 최대의 여성 옹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예수 그리스도, 478쪽)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것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생명수에 관해 가르치신 후에, 간단하게 “내가 그라”(요한복음 4:26)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1:25~26)

주

님은 특히 의로운
여성들, 즉 하나님의 딸로서
생활하고 봉사하려고 애쓰는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구세주께서는 한 사람 곧 그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끔찍하지만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분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9: 26~27 참조)

이것을 통해 여러분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특히 의로운 여성들, 즉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여성,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쾌활한 여성, 하나님의 딸로서 생활하고 봉사하려고 애쓰는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남자들은 신권을 지니도록 성임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편애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지닌 전세와 현세의 본성은 하나님에 의해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며, 그분의 자녀 가운데 어느 누구의 역할이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아닙니다.

조셉 윌딩 스미스(1876~1972) 대관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들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십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4월, 59쪽)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성신의 은사를 받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며, 성전 의식에 참여하여 그로부터 권세를 부여 받아 나오며, 충만한 복음을 받으며, 해의 왕국에서 승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다같이 그들의 충실함과 그것을 받으려는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본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 지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승영과 영생이란 영원한 진보의 과정을 계속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나의 형상 곧 내가 지은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저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리라.

“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더라.”(모세서 2: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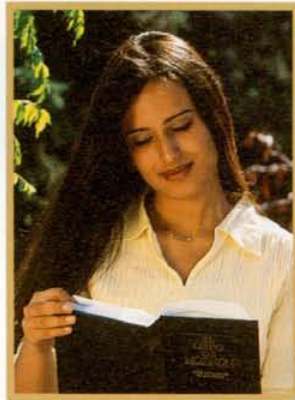
가족에 관한 교회 선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고 했습니다.

이 교리는 때로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성의 가치는 오직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배타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자녀들이 의로운 가운데 걸어가도록 키우

는 것보다 더 원대하고 영원한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어머니가 되고 결혼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만이 여성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할 경우, 이러한 축복들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특권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은 물론 이 값지고 영원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하게 될 일 이상으로 더 의미 있는 공헌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일이 선함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모든 의로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왜곡에 관한 염려

저는 여성들에 대해 그리고 모든 중요한 환경, 특히 가족과



모든 의로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들이 가져오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깊고 변함없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 교회 협의 체제 안에서 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담대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협의의 힘”,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6~78쪽 참조) 여성의 영감적인 통찰력과 지지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청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청남과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과 역할,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가치에 관한 마음가짐을 왜곡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여성 특유의 가치와 역할, 기여, 본질에 대한 대혼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영화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오늘날의 유행 문화는 육감적이고, 버릇없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여성들을 크게 선전합니다. 이 같은 왜곡된 생각이 우리 교회의 일부 자매들의 생각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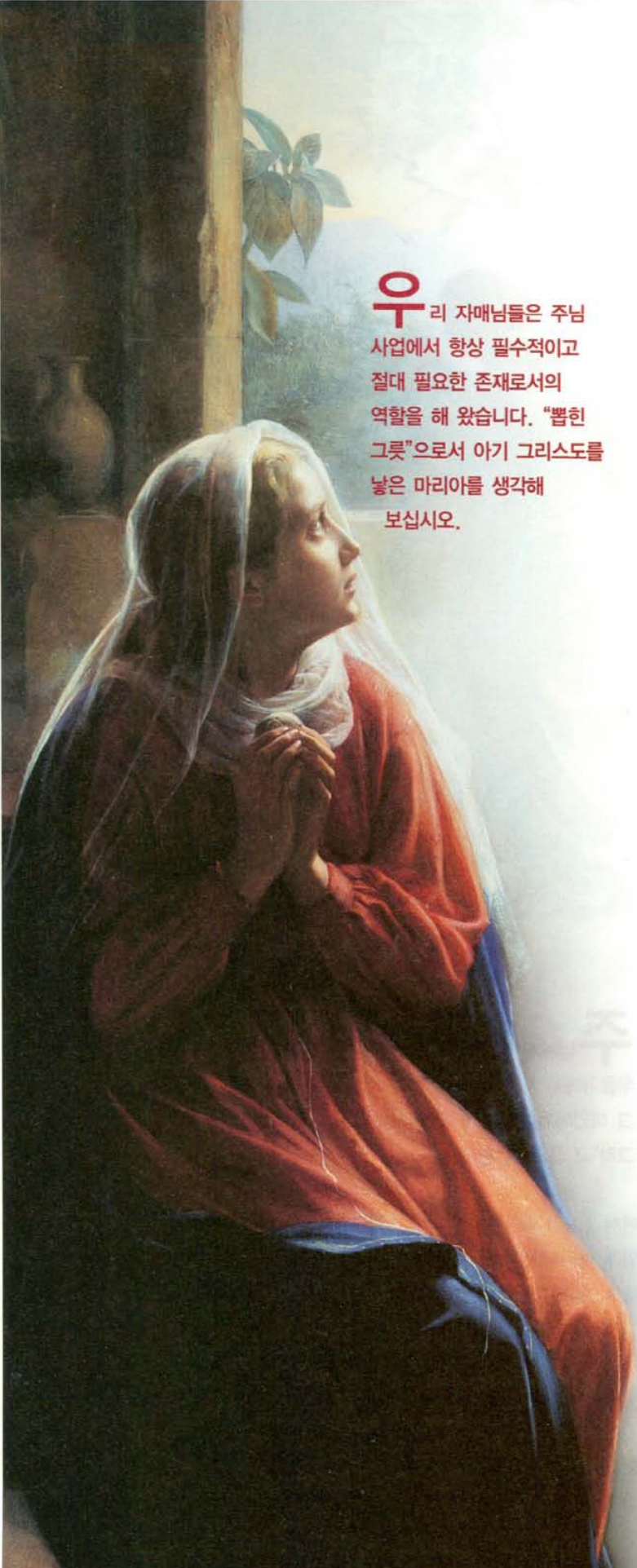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의 감리 평의회에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에 있는 자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함과 힘, 덕과 용기를 내는 성향, 친절과 용기, 힘과 복원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족과 와드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정서적인(때로는 영적인)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나 충실함,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타고난 마음과 영적인 힘과 강인함 없이는 마땅히 성취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비가 되고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반면 사탄의 계획은 여러분이 여성에 관해 세상의 황홀하게 반짝이는 거짓에 도취되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되어야 할 인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니파이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것은, 아픔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생명수에 관해 가르치신 후에, 간단하게 “내가 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서 2:27)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약속된 영원한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소중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청남 여러분, 제가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한다고 하여 너무 느긋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로 여러분은 청년들이 이곳에서의 영원한 사명에서 빛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될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상에 속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 자매님들은 주님
사업에서 항상 필수적이고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뿔힌
그릇”으로서 아기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딸들을 보호하고 지켜 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젊은 여성으로부터 덕성과 순결을 흠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여성은 주님의 사업에서 중요한 존재임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업에서 항상 필수적이고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청남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충실한 여성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진리와 의의 대업에서 용감하게 일해 왔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대관장은 죽은 자를 위한 구속에 관한 시현에서 시조 아담과 다른 예언자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영예스러운 어미인 이브도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왔던 많은 충실한 딸들과 함께 있”(교리와 성약 138:39)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할 데 없는 이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뿔힌 그릇”(앨마서 7:10)으로서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여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에도 여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지와 다양한 계층에 속한 무수한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대업에 극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순교한 예언자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모친이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조모인 루시 맥 스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녀가 지닌 강인함과 의로움은 분명 예언자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이 예임된 운명을 성취하는 길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브도 마리아도 루시 맥 스미스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저 평범하고, 나이 든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기여한 것 가운데 주님께 의미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은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신 것일까?” 눈에는 그다지 띄지 않지만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의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문경에 있는 예언자의 말을 빌자면 그들도 “못지 않게 백성들에게 봉

사한 자들”(앨마서 48:19)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대관장은 그 문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로운 남자와 의로운 여자는 모두 그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충실한 남성은 어느 일정한 신권 과업에 예임된 반면에 충실한 여성은 어느 일정한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상세한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 우리는 아주 오래 전에 우리에게 기대되었던 일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My Beloved Sisters* [1979], 37쪽)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고,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고, 시온의 가정들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는 의로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여성보다도 더 크고 높은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Great Indignation Meeting*, *Deseret Evening News*, 1870년 1월 15일, 2쪽)

진리와 의로움을 지지하는 모든 자매는 악의 영향이 줄어들게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모든 자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생활하는 모든 자매는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빛이 되며,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수확하게 될 의로운 영향력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자매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구세주의 모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전세에서의 약속에 따라 그대로 사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신, 그분의 장자이신 독생자께서 나누신 말씀에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구

원 받고 강화되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 위해 누가 시상에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구세주께서 그분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해야 할 목표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 어떤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각오를 했을 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시여, 자녀를 의로움 가운데 키울 여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속한 것을 피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위엄을 갖추어 말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세상에 보여 줄 여성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여성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충실하고 꾸준한 여성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현재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사이에, 그분은 모든 가족, 모든 와드, 모든 지역 사회, 모든 국가에서 의로움 가운데 앞으로 나서며 말과 행동으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여성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신권을 소유한 남성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부름에 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과 가족—그 두 가지가 주님께 갖는 중대성—에 대한 거짓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께 끊임없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 하나님의 딸로서 생활하는 모든 자매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수확하게 될 의로운 영향력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에게 걸맞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탄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며 필요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십시오. 둘째, 영의 음성, 혹은 성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도와 예언자들을 따르십시오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많은 견해들을 쏟아 내며, 광고주들은 돈에서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서 얻어 내고자 경쟁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하고, 오염되지 않고, 편견이 없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오직 “여러분의 영원한 복리”(니파이서 2:30)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영원한 복리를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며, 언제나 영감 받은 진리를 제공해 주는 정보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한 선물이요, 안내입니다.

2000년 11월에 힝클리 대관장님은 교회 노변의 모임에서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0~41쪽 참조) 독신 회원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저는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직전에 두 번째로 귀를 뚫었다는 17세 된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변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두 번째 귀걸이를 떼어 낸 다음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힝클리 대

관장님이 한 세트의 귀걸이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하나면 충분해요.”



두 세트의 귀걸이를 하는 것은 이 청년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언자에게 가까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은 영원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비교적 간단한 것에 순종할 경우, 좀 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언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더 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참된 약속을 하나 드립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권고에 유의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자매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탄의 울무를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들이 당황스럽고 복잡하여 안내가 필요하다면, 성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

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물론 그 음성이 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니파이는 성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며 “부지런히 구하면 찾을 것이”(니파이 일서 10:17, 19)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놀랄 만한 진실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조절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얼마나 분명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 선택하는 것과 보고 듣고 읽는 것, 얼마나 꾸준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영을 초대하느냐에 의해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축복이 미치는 정도와 영향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활용하고 존중할 경우, 살아가며 당면하게 되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각종 문제에 관한 답을 주는 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청년 여러분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이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학업을 마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떠한 직업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여태껏 진심으로 원해 왔던 것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는데 어쩌서 열정적으로 직업을 추구 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두 자녀를 잃었지만, 만일 여러분이 자식을 땅에 묻어야 하거나, 혹은 자녀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겠다고 위협할 경우, 평안과 위안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는 의로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 여로의 한 부분인 장애물과 어려움에 안전하고 자신 있게 대처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첫째,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원리들을 공부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원리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자제하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앨마서 37:37) 그분은 성신의 권세와 임재하심으로 여러분과 대화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신의 속삭임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엘마 이세와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했으며,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앨마서 17:3)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둘째는 경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니파이서서 32:3) 줍니다.

경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통로입니다. 독신 회원 여러분, 여러분 세대는 제가 여러분 연령이었을 때보다 경전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있는 경전 공부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능력이 증가하고 향상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게 되는 적절한 때가 되면, “권능으로 무장”(교리와 성약 109:22)하게 되며, 주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 “성신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109:15)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갖고 성전을 나서게 됩니다. 성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아직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성전

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성전 문 안에는 인생의 역경에 맞서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는 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우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명하며 경험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털어놓으십시오.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그가 합당치 않거나 축복을 줄 수 없을 때 감독님이나 스테이크장님에게 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십시오.

다섯째는 순종과 회개입니다. 성신의 동반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속한 음악을 듣거나, 성적인 묘사가 많은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에서(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외설물을 보거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순결의 법을 합리화하거나, 참된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런 활동에 관여할 경우, 외로움과 낙담과 합당치 않는 느낌이 뒤따르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속삭이고, 경고하고, 평안으로 채워 줄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생활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성신의 동반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속삭임에 따르는 여성과 남성은 주님의 손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저는 어떤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에 경험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압으로 고생하는 한 청녀를 축복하는 데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은 개종한 가족이었는데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평안을 찾았습니다. 축복하기 전에 이 사랑스러운 자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지만 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평안을 찾고 그분이 저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축복해 주세요.”

영이 그녀에게 축복으로 준,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며 통찰력이며 용기입니까! 몇 달 후에 그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를 불러가셨다고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숨졌으며, 가족은 영과 친숙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전해 줄 가장 감미로운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의 감리 평의회에 있는 형제님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다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합니다. 가족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인 활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데 여러분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없다면 예임된 그 숙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이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 대다수는 영적으로나 다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영원한 본성에 의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자녀, 청소년, 그리고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비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양육자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은사와 재능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생활하는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선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전보다 더욱 신앙과 미덕과 비전과 사랑을 지닌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매리 앨런 스무트,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리야호나, 2000년 1월호 111쪽 참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자매가 필요함



성전 문 안에는 인생의 역경에 맞서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는 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니다. 남자처럼 되고 싶어하고,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옷을 입고, 일부 남자들처럼 운전을 하거나 남자처럼 행동하는 여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자신이 여성임을 기뻐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영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와 진리를 수호하고 언제나 악을 물리치며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들이며, 이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

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굴러 퍼질 것입니다. 온 세상에 햇불과 깃발이 되어 세상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여성은 선을 행하고 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타고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여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2001년 3월 13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인 말씀

여러분이 가족과 자녀, 청소년, 그리고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비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양육자입니다.



제가 드린 간증은 진실합니다

루시 맥 스미스 자매(1775~1856)

요셉에게서 배움

첫번째 시현 이후 약 4년이 지났을 때,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다. 천사는 금판에 쓰인 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앞으로 행해야 할 사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다. 루시 맥 스미스 자매는 그녀의 18세 된 예언자 아들이 가족에게 물문경과 회복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었다.

해질 무렵 ..., 우리가 모두 둘러앉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말해 주었고, 우리도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

그 때로부터 출근 요셉은 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는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그가 받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하나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두 함께 둘러앉아 온 마음으로 열여덟 살 된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때까지 성경을 전부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책을 속독하는 경향은 덜했지만, 명상과 깊은 연구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줄 수 있고, 구원의 계획과 인간 가족의 구속에 대해 보다 온전한 지식을 알게 해 줄 무언가를 받게 드러내려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집안 가득 행복이 넘치며,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녁 대화 중에, 때때로 요셉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말을



루시 맥 스미스 자매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로서 또 회복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불타는 간증을 전했다.

하곤 했습니다. [미] 대륙에 살았던 고대의 주민들과 그들의 의복, 교통 수단, 타고 다니던 짐승, 도시와 건물들, 전쟁 방법, 종교 의식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전에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

살해된 아들 요셉과 하이람을 바라보는 충격적인 경험을 기록하며, 루시 맥 스미스 자매는 예언자로서의 요셉의 사명에 대해 열렬하고 힘찬 증언을 했다.

[요셉과 하이람의 시신을 찢고 수의를 입힌 후야, 우리는 죽은 두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을 추스리고, 기력을 돋우면서 하나님께 힘을 간구했지만, 영안실에 들어서자 ..., 너무 견디기 힘들어, 주저앉으며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을 버리시나이까!" 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내가 저들을 편히 쉬게 하려 내게로 데려왔느니라." ...

평화롭게 미소 짓는 얼굴들을 내려다보는데, 두 아들이 마치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들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저희의 영혼을 구하고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간증으로 인해 우리를 죽였으니, 우리는 저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잠시 동안이나, 우리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

제가 드린 간증이 참되다는 것과 영원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도 제 간증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날에 저는 제가 간증한 사람들을 천사들

복추 크오 궘 밧 톨조궘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의로운 영들은 천사장들과 스랍들과 그룹들(케루빔)과 여러 신들 앞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잠시 권세를 누리던 악인은 만주의 주님이시며 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의인은 사람

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그 의를 헤아림 받아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

History of Joseph Smith, Preson Nibley 편집(1958), 82~83, 324~328쪽.



십일조를 낼 때 오는 축복

제니퍼 엠 세베리노

저는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리라는 말라기 예언자의 말을 믿었습니다.(말라기 3:10 참조) 그 말을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일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문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월급날이면 십일조를 따로 떼어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은 흔히 주중에 찾아왔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면 떼어 놓은 십일조에서 다시 “빌려” 쓰곤 했습니다. 돈을 보충해서 안식일에 감독님께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대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린 십일조를 다음 월급에서 낼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자, 이제는 쥐꼬리 만한 돈이 남을 따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첫 해에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한 어느 영업 사원이 제게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갚아 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할부 계획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축복을 내려 주실까?”

다음날 종교 교육원 수업에서, 함께 토론한 경전 첫 구절에서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모든 계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것도 언제나 충만한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킬 것을 계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 밤, 태만한 태도로 십일조를 낸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십일조를 충실하게 내고 있으며, 주님의 축

복과 함께 수입의 90 퍼센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100 퍼센트 수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제니퍼 엠 세베리노는 필리핀 바콜로드 스테이크 바콜로드 제1와드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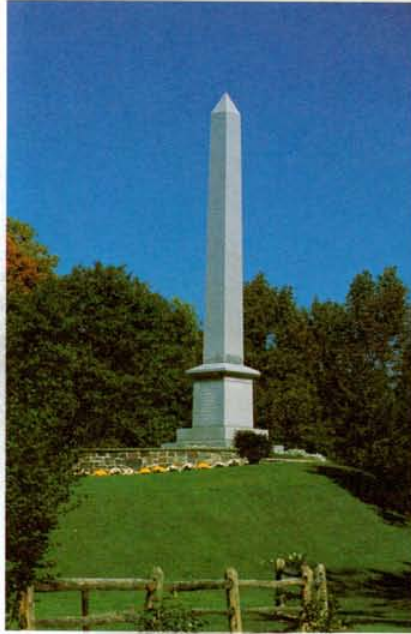


제게 지금 사고 나중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해 준 어느 영업 사원을 만난 후에 저는 주님께서도 이 같은 할부 계획을 인정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념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던 1905년 12월 23일에, 교회는 그의 고향인 버몬트 주 사론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905년 당시 스미스 가족이 살던 사론의 작은 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곤 벽난로용 재반이 돌과 풍상에 헐어 가는 집터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재반이 돌 둘레에 기념관을 복원한 것입니다. 커다란 기념비가 또한 세워져, 상당한 어려



1918)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남겼습니다.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기념비와 마음에 경외심을 품고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소서. 전혀 존경하는 마음 없이 찾아오는 이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열리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인생과 구속에 대한 위대한 문제를 신실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요셉 스미스 기념비 헌납식 말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족 및 교회 역사 기록부 문서], 26쪽)



“우리는 각자 예수님이 머무실 방을 정하는 여관 주인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리아호나, 1993년, 1월 호, 65쪽)

움을 던고, 이 곳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버몬트 주의 화강암으로 만든 방첨탑으로,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방첨탑이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오늘 날에도 서 있으며, 높이가 38피트 반으로 (약 11.5 미터), 이는 1피트(30.48cm)를 1년으로 계산하여 예언자 생애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념비 헌납식에서, 예언자 요셉의 조카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



펠리스 나비다드

멕시코 치와와(Chihuahua) 소재 후아레스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세미나리 학생들이 선교사를 도와 성탄절 기간에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50명의 학생들은 각자 몰몬경을 근사하게 포장하여 콜로니아 후아레스와 콜로니아 더블란스테인크 지역의 구도자에게 전하도록 선교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여러분이 소속된 정원회나 반원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간증을 강화시켜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조직하고 위임하는 것이 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또한 충실함과 순종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

사진 촬영: 엘든 시 앤더슨, 기념비
그림: 로버트 티 베렛,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의 일부
그림: 테드 헤닌저, 첫번째 시편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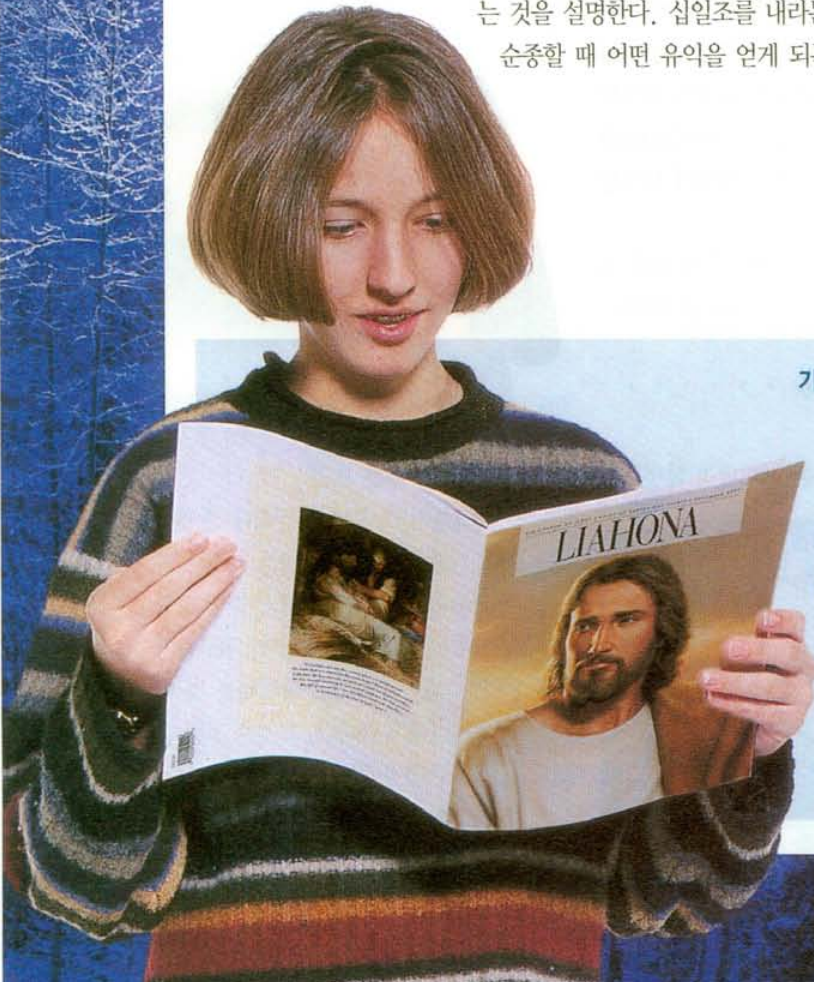
■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간증”, 2쪽: 구세주에 대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간증을 읽고 간증을 전한다. 그런 후에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도록 권유한다.

■ “제가 드린 간증은 진실합니다.” 44쪽: 요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그의 삶에 관한 공과를 가르친다. 그런 후에 예언자로 부름 받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 자매의 간증을 읽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여러분이 간증한다.

■ “십일조를 낼 때 오는 축복”, 46쪽: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십일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열거해 보라고 한다.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은 교회가 필요한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도 마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십일조를 내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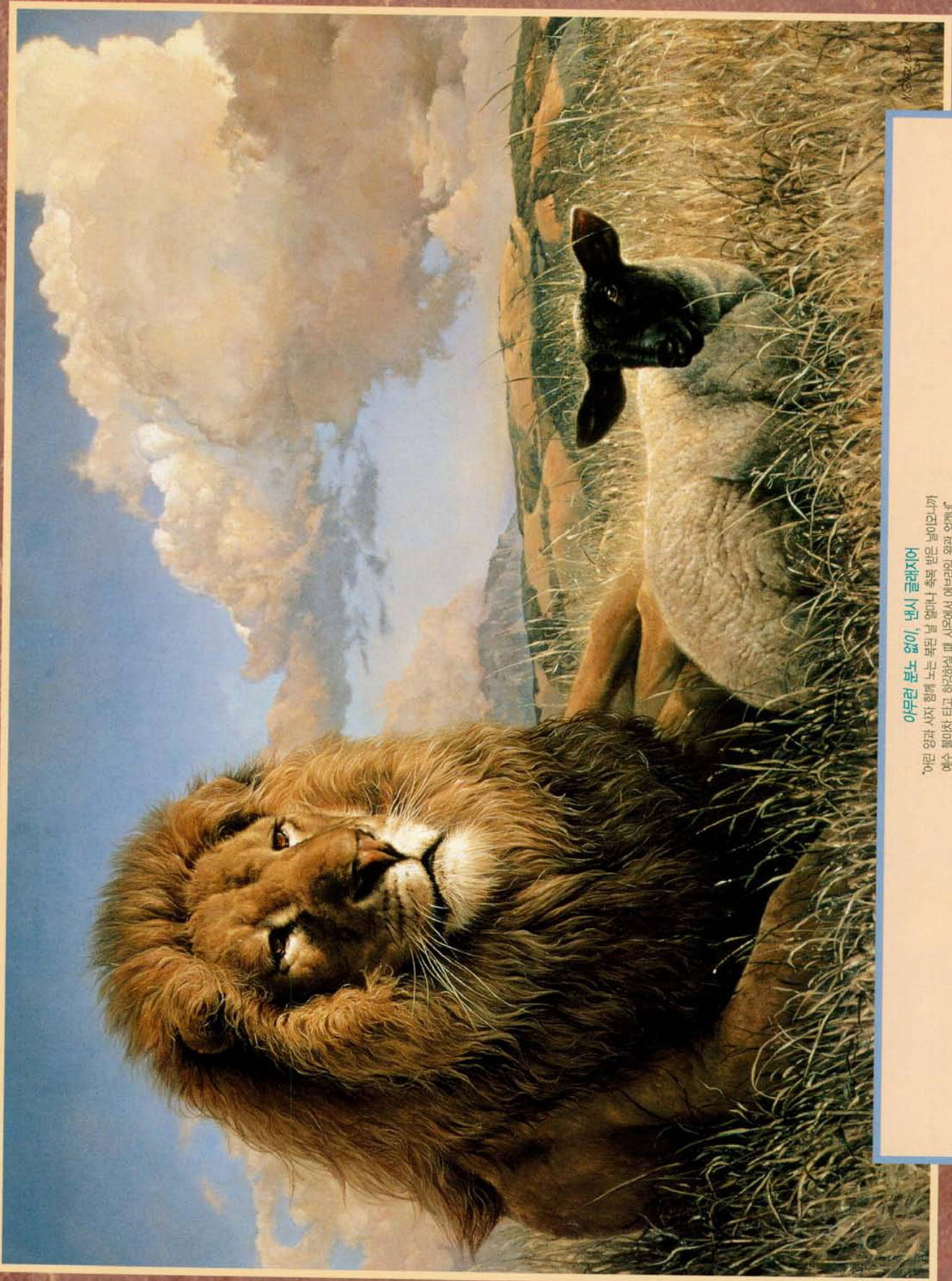
이번 호의 주제들

- 친=친구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교육 5
- 가정의 밤 48
- 간증 2, 6, 10, 44
- 개종 26, F14
- 교회사 44, 47, F6
- 데이트 22
- 미술 10
- 방문 교육 33
- 봉사 25, 26, 32
- 부활 2
- 사랑 26, F2
- 선교 사업 26, 32
- 선물 25, 32, F2
- 성신 26, 34
- 성전과 성전 사업 20, 33, F12, F14
- 성탄절 2, 25, 26, 32, F2, F4, F6, F16
- 속죄 2, 16
- 순종 22
- 신앙 2, 46
- 신약성서 이야기 F9
- 십일조 46
- 여성 34
- 예수 그리스도 2, 6, 10, 16, F2, F4, F9, F12, F16
- 예언자 6, 34
- 요셉 스미스 44, 47, F6
- 음악 20, 32, F6
- 의로움 34
- 재림 F9, F12
- 죽음 16
- 지도자(지도력) 47, 48
- 초등학교 F12
- 표준 22
- 회복 44
- 희망 16
- 희생 F14



기사를 모집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 난을 위해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어린이들의 경험담을 보내 주십시오. 주소는, Trying to Be like Jesus,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어린이의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워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도 적어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을 보내 주시고, 글 내용에 해당되는 사진도 가능하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분노 없이, 내시 클라지어

“어린 양과 사자 함께 노는 목민 날 얼마나 축복 받은 날이로니까
예수 불마치 타고 하강하실 때 시몬에서 에브라임 왕관 앉겠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경외심과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필멸의 상태에 놓인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증” 2쪽 참조